

A gentle hike up bible mountains – Sermon Notes

Title: “Zion”

Scripture: 2 Samuel 5:1-7

Date preached: June 1st 2025

Scripture: 2 Samuel 5:1-7

1 Then all the tribes of Israel came to David at Hebron and spoke, saying, “Indeed we *are* your bone and your flesh. 2 Also, in time past, when Saul was king over us, you were the one who led Israel out and brought them in; and the LORD said to you, ‘You shall shepherd My people Israel, and be ruler over Israel.’” 3 Therefore all the elders of Israel came to the king at Hebron, and King David made a covenant with them at Hebron before the LORD. And they anointed David king over Israel. 4 David *was* thirty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forty years. 5 In Hebron he reigned over Judah seven years and six months, and in Jerusalem he reigned thirty-three years over all Israel and Judah. 6 And the king and his men went to Jerusalem against the Jebusites, the inhabitants of the land, who spoke to David, saying, “You shall not come in here; but the blind and the lame will repel you,” thinking, “David cannot come in here.” 7 Nevertheless David took the stronghold of Zion (that is, the City of David).

1.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아니이다
2.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3.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4. 다윗이 나아가 삼십 세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다스렸으되
5.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6.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인 여부스 사람을 차려 함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아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 다윗이 아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힘이나
7.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Review

Today we are going to be looking at Mount Zion a very significant and frequently mentioned biblical mountain. But before we do that let us relive some of the picturesque highlights from last time.

As I'm sure you all remember we spent a very pleasant morning wandering along the wooded slopes of Mount Carmel. Mount Carmel is actually a mountainous ridge rather than a single mountain peak. The ridge begins on the Mediterranean coast near the city of Haifa and runs approximately 24 kilometres south-east down to the plain of Dothan. It has always been a beautiful part of Israel due in large part to the abundance of plants and trees that flourish in the area. The very name Carmel derives from a Hebrew word which means “vineyard,” “orchard,” or “garden.” Today Mount Carmel is part of Israel's largest national park.

It has throughout history been considered to be a special or sacred place. We have ancient Egyptian records that refer to Mount Carmel as being a “holy mountain.” Ancient people groups such as the Canaanites believed the region to be the home of their gods. As such it was often a site for pagan idol worship.

The Mountain is mentioned on 24 occasions in the Old Testament but never in the New. It was an area that Joshua captured at the time of the conquests. This means it is now, and will always be part

of the Jews inheritance. In scripture the mountain is often praised for its beauty and fertility. It is however best known for being the setting for the epic showdown between Elijah and the prophets of Baal. This was the story we looked at last time.

Elijah was called by God to speak His truth at a particularly dark time in Israel's history. The nation was being ruled by King Ahab. He was an evil man and consequently a bad king. From the very beginning of his reign he had decided to reject God and follow his own path. This was not helped when he married the wicked pagan Jezebel. She encouraged Ahab to further distance himself from Yahweh and set up a temple to Baal in his capital of Samaria. Previous kings of Israel had led the nation astray, but none, until Ahab had actually made Baal worship the state religion. God would not stand back and watch this happen. He sends the prophet Elijah to tell Ahab that there would be no dew or rain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This was God's judgement on the nation. After delivering this news Elijah made a hasty retreat.

Three years, and a number of interesting incidents later God tells Elijah to return to Ahab. He will now send rain. The two have a spiky meeting at which Elijah throws down a challenge. Whoever can encourage their respective deity to send down fire and consume a sacrificial offering wins the contest. The winner will be acknowledged as being the one true God, and will be worshipped and obeyed accordingly. This exciting spectacle will be watched by the whole nation. Tickets are sold and the popcorn and hot-dog vendors make a killing.

In the red corner we have 450 prophets of the Canaanite storm god Baal. In the blue corner we have the prophet Elijah representing Yahweh. The prophets of Baal are supremely confident. Everyone knows that he is master of lightning bolts. It shouldn't therefore be very hard for him to get a sacrificial fire going. Since the followers of Baal massively outnumber Yahweh's side (only Elijah) they are permitted to go first. After setting up their altar and chopping up a bull they dance enthusiastically, and call out for Baal to send fire. Baal must be otherwise engaged because nothing happens. Even when they ritually cut and slash themselves Baal remains unmoved. Elijah mocks their feeble efforts and calls into serious doubt the ability of their god. Perhaps, he tells them Baal is busy or even more shockingly maybe he's occupied in the bathroom!

It is now Elijah's turn. He rebuilds the altar, places the wood and bull on top and then he does something guaranteed to make the task harder. He orders that 12 pots of water be poured over everything. So now with the altar, wood and sacrifice dripping wet he calls out to God to hear and answer his prayer. At this point God sends an all-consuming fire. The sacrifice, wood, water and even the stone is vaporised in an instant. Everyone present is suitably awed. Yahweh really is the one true God. The people fall on their faces and proclaim Him Lord. Elijah then orders that the prophets of Baal be captured and executed. That's always the most efficient way of ensuring that bad and wicked people don't get to commit evil acts again. Just think for a moment of all the "reformed" prisoners let out of jail who went on to murder, rape or commit acts of terror AGAIN!

This amazing event took place on Mount Carmel. Today we will look at Mount Zion.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고 자주 언급되는 시온산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 보았던 그림 같은 풍경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갈멜산의 숲이 우거진 경사면을 따라 걸으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멜산은 실제로 하나의 산봉우리가 아니라 산맥입니다. 이 산줄기는 하이파 근처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약 24km 를 따라 도단 평야까지 이어집니다. 이곳은 무성하게 자라는 식물과 나무들 덕분에 이스라엘에서 언제나 아주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갈멜이라는 이름 자체가 "포도원", "과수원", 또는 "정원" 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늘날 갈멜산은 이스라엘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의 일부입니다.

역사상 갈멜산은 특별하고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기록에도 갈멜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언급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포함한 고대 민족들은 이 지역을 신들의 거주지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종종 이교도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갈멜 산은 구약성경에서 24 번 언급되지만 신약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지역
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스라엘에 속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산은 아름다움과
비옥함으로 칭송받지만, 엘리아와 바알 선지자들의 극적인 대결이 벌어졌던 곳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
에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특히 암울했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
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인간이었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통치 초기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가 사악한 이교도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아합에게 여호와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도록 부추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나라를 그릇된 길로
이끌기는 했지만, 아합처럼 바알을 국교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엘리
아를 보내 아합에게 오랫동안 아슬과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뒤 엘리아는 서둘러 피했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사건들이 벌어진 3 년의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아합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두 사람은 불편한 만남을 가졌고, 엘리아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각자의 신에게 간구하
여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는 편이 이기는 것입니다. 승자는 유일신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라 경배와 순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광경을 온 백성들이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타켓이 팔리고 팝콘과 핫도그를 파는 장사치들
은 때돈을 벌니다.

홍팀에는 가나안 폭풍의 신 바알의 선지자 450 명이 있습니다. 청팀에는 여호와를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아가 있습니
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바알이 번개의 주인이니 제물에 불을 붙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바알의 추종자들이 여호와 편(엘리아만 해당)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단
을 쌓고 소를 조각 내 올린 후, 그들은 격렬하게 몸을 흔들며 대며 바알에게 불을 내려 달라고 외칩니다. 바알이 다른
일을 보고 있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종교 의식대로 스스로의 몸을 베어 상처를 내는 데도 바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아는 그들이 가소롭게 애쓰는 것을 비웃으며 그들의 신의 능력을 심각하게 의심합니다. 엘
리아는 바알이 바쁜가보다고 비교면서, 그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느냐보다 라고 심하게 조롱합니다!

이제 엘리아 차례입니다. 그는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나무와 조각낸 소를 얹은 후,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합니다. 물통 열두 개를 채워 모든 것 위에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제단과 장작, 제물이 흠뻑 젖은 상태에서 엘리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을 보내십니다. 제
물과 나무, 물 심지어 돌까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외심에 사로잡힙니다. 여호와만
이 참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을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엘리아는 바
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사악한 자들이 다시는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제
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소위 "개심한 reformed" 죄수들이 살인, 강간, 테러 등의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사건이 갈멜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시온 산을 살펴보겠습니다.

Today we are going to look at Mount Zion. This mountain holds a significant place in both biblical
history and theology. The mountain serves as a symbol of God's presence, it is the centre of worship
and it also represents the future hope of God's people. The other mountains we have looked at were
simply geographic places in which God revealed things to human beings, or where significant
events occurred. Mount Zion represents much more than just a geographic site. It is both a physical
location and a spiritual concept or idea. In many ways the spiritual significance of Zion out weighs

its geographical location. Let's deal first with the physical location. Where is Mount Zion?

As I'm sure you are aware Jerusalem is a mountainous city. It is situated on a plateau in the Judean Mountains at an average elevation of 784 metres above sea level. Like Athens, Rome, Moscow, Seattle, Istanbul and Sheffield in the UK it is built on seven hills. Let me briefly run through the seven in no particular order.

The seven hills (mountains)

The Highest of the Seven Mountains is Mount Scopus located in north-east Jerusalem. It rises to a height of 826 meters above sea level. Its Hebrew name is *Har HaTsofim* which translates as "Mount of the Watchmen or Sentinels."

We come next to the Mount of Olives, also known as Mount Olivet. It is a mountain ridge located to the east of Jerusalem. The highest point on the Mount of Olives is *At-Tur* which reaches a height of 818 meters above sea level.

If we travel south from Mount Olivet we come to the Mount of Corruption. It is actually located on the same ridge as Mount Olivet. Its name comes from King Solomon's era when idol temples were erected on its slopes. It reaches a height of 747 meters above sea level.

We come next to Mount Ophel. It is sandwiched between the City of David and the Temple Mount in Jerusalem. It is a hugely important archaeological site which constantly yields ancient treasures. The term "Ophel" translates to "swell or rise." It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or enhanced by King Solomon. It served as the biblical equivalent of an acropolis where royalty ruled.

Just south of Mount Ophel we have Mount Zion. It was once the highest point in ancient Jerusalem and part of the walled upper city. It was known for obvious reasons as the "heart of Jerusalem."

The New Mount Zion is located as you can see on the map west of the original Mount Zion.

The final mountain of the seven goes by several names. It is at times referred to as the Hill of the Antonia Fortress. But, it's probably better known as Mount Moriah. Mount Moriah is traditionally identified with the Temple Mount in Jerusalem. This association is based on 2 Chronicles 3:1 which states,

Now Solomon began to build the house of the LORD at Jerusalem on Mount Moriah, where *the LORD* had appeared to his father David, at the place that David had prepared on the threshing floor of Ornan the Jebusite.

There is plenty more that I could say about each of these mountains but our attention today is centred upon Mount Zion. So let us turn next to consider the biblical significance of this mountain.

오늘 우리는 시온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은 성경 역사와 신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배의 중심이며,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 소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른 산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셨거나 중대 사건들이 일어났던 지리적 장소로서 중요했습니다. 시온산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 그 이상을 상징합니다. 물리적인 장소이자 영적인 개념이나 사상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시온의 영적인 중요성은 지리적 위치보다 더 큼니다. 먼저 산이 존재하는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유대 산맥의 고원에 위치해 있으며 평균 해발 784 미터입니다. 아테네, 로마, 모스크바, 시애틀, 이스탄불, 영국의 셰필드처럼 예루살렘도 일곱 개의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특별한 순서 없이 이 일곱 개의 언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언덕산 The seven hills (mountains)

일곱 산 중 가장 높은 산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스코푸스 산 Mount Scopus 입니다. 해발 826 미터에 달합니

다. 히브리어로 *Har HaTsofim* 으로 "파수꾼 또는 보초병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Mount Olivet 이라고도 불리는 올리브 산 Mount of Olives 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산줄기입니다. 올리브 산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At-Tur* 로 해발 818 미터에 이릅니다.

올리브 산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 부패 산 Mount of Corruption 에 도착합니다. 사실 올리브 산과 같은 산줄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솔로몬 왕 시대에 우상 신전들이 산비탈에 세워졌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해발 747 미터에 이릅니다.

다음은 오펔 산 Mount Ophel 입니다. 예루살렘의 다윗 성 City of David 과 성전산 Temple Mount 사이에 위치한 오펔 산은 고대 유물들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Ophel"이라는 단어는 "숫아오르다"를 뜻합니다. 솔로몬 왕이 건설하거나 증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Ophel 은 왕족이 다스렸던 아크로폴리스와 비슷합니다.

오펔 산 바로 남쪽에 시온 산 Mount Zion 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고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었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상부 도시의 일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심장 heart of Jerusalem "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새 시온 산은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시온 산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곱 산 중 마지막 산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안토니아 요새 언덕 Hill of the Antonia Fortress 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모리아 산 Mount Moriah 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Temple Mount 과 동일시됩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역대하 3 장 1 절에 근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하신 곳이었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각각의 산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시온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시온 산의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Mount Zion in the bible

As I alluded to in my introduction getting to grips with Mount Zion is not easy. This is because the name "Mount Zion" or "Zion" is used in different ways in the Bible. It is spoken of in each of the following ways.

1. As a physical location

It is a real mountain sited in Jerusalem.

2. As a symbolic reference to something theological

Zion is often used symbolically in the Bible to represent God's chosen dwelling place and the spiritual centre of His kingdom. It is depicted as the place where God resides and where His people gather to worship Him (Psalm 132:13-14).

3. As a centre of worship and pilgrimage

Mount Zion is central to the worship life of Israel. It was the location of Solomon's Temple, where sacrifices and daily offerings were made. It was also where the Ark of the Covenant was housed. Pilgrims would ascend to Zion for all the major feasts.

4. As a focal point for prophetic hope and restoration

Zion is also a focal point of prophetic hope and eschatological expectation. The prophets speak of a future time when Zion will be exalted and all nations will stream to it to learn God's ways (Isaiah 2:2-3).

5. As a place of messianic fulfilment

The New Testament writers see the fulfilment of Zion's promises in Jesus Christ. Hebrews 12:22 states,

But you have come to Mount Zion and to the city of the living God, the heavenly Jerusalem, to an innumerable company of angels,

This spiritual Zion is the assembly of the redeemed, where Jesus, the mediator of the new covenant, reigns.

6. As an eternal place of God's glory

Revelation 14:1 envisions a future Zion where the Lamb stands with the 144,000, symbolizing the ultimate gathering of God's people in His presence. This eternal Zion is the culmination of God's redemptive plan, where His people dwell with Him forever.

All of this means you need to look closely at the context in which the word appears.

The name Zion appears in the Old Testament 152 times as a title of Jerusalem. Interestingly over half of these occurrences appear in just two books, the Book of Isaiah (46 times) and the book of Psalms (38 times). It appears seven times in the New Testament and five times in quotations from the Old Testament.

The word *Zion* (transliterated as *Tsiyown* in the Hebrew) essentially means “fortification” or “citadel.” It carries the idea of being “raised up” as a monument or a stronghold.

The first mention of Zion in the Bible is 2 Samuel 5:7.

We shall be looking at this passage in more detail shortly. Zion was originally an ancient Jebusite fortress. After David’s conquest of the fortress, Jerusalem became a possession of Israel. King David built his royal palace on the site, and Zion or Jerusalem became the seat of power in Israel’s kingdom. When Solomon built the temple in Jerusalem, the meaning of Zion expanded to include the broader temple area (Psalm 2:6; 48:2,132:13). Over time, the term expanded further still to represent the entire city of Jerusalem.

With this background in place allow me now to set the scene for today's passage.

성경 속의 시온 산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시온 산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시온 산" 또는 "시온"이라는 이름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시온 산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언급됩니다.

1.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

예루살렘에 위치한 실제 산입니다.

2. 신학적 의미를 □□□□ 언급하는 경우

시온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소이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중심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으로 묘사됩니다(사편 132:13-14).

3. 예배와 순례의 중심지

시온 산은 이스라엘인들의 예배 삶의 중심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제사를 드리고 매일 제물을 바치던 곳입니다. 또한 안약위가 보관된 곳이기도 합니다. 순례자들은 모든 주요 절기에 시온으로 올라왔습니다.

4. 예언적 소망과 회복의 중심점

시온은 또한 예언적 소망과 종말론적 기대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은 시온이 드높여지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 그곳으로 몰려들 미래에 대해 예언합니다(이사야2:2-3).

5. 메시아적 예언 성취의 장소

신약 성경 저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2 장 22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 영적인 시온은 구원받은 자들의 성회이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6.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장소

요한계시록 14 장 1 절은 어린양이 십사만 사천 명과 함께 서 있는 미래의 시온을 묘사하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영원한 시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이며, 그분의 백성이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이렇듯 시온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므로 이 단어가 등장하는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은 구약성경에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칭호로 152 회 등장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중 절반 이상이 이사야(46 회)와 사편(38 회) 두 권에서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7 회, 그리고 구약성경을 인용한 구절에서 5 회 등장합니다.

시온Zion(히브리어 *Tsiyown* 의 음역)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요새fortification" 또는 "성채citadel" 를 의미합니다. 기쁨비 또는 요새로 "세워진다raised up" 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온이 처음 언급된 곳은 사무엘하 5 장 7 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은 원래 고대 여부스족의 요새였습니다. 다윗이 이 요새를 정복한 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곳에 왕궁을 세웠고, 시온 또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왕국의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 시온은 성전 지역(사편 2:6; 48:2; 132:13)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용어는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는 데까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Today's account is taken from 2nd Samuel. In the Hebrew Bible first and second Samuel were combined into one book. The translators of the Septuagint divided them and they remain divided in our bibles today. But when you read them you can clearly see that 2nd Samuel continues the narrative from the first book.

To summarise very briefly, First Samuel tells us about God's establishment of a monarchy for His chosen people. The book covers a time span of approximately 100 years. The account begins by telling us about the birth and rise to prominence of the prophet Samuel. We then read the fascinating account of the rise and fall of the nation's first king; Saul. As we all know he started off well, but ended very badly. The book of 1st Samuel ends with Saul taking his own life.

The book of 2nd Samuel covers around 40 years of Israel's history. Its contents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and an appendix.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David's triumphs (chapters 1-10) and the second David's troubles (chapters 11-20). The last part of the book (chapters 21-24) is a non-chronological appendix which contains further details of David's reign.

The book of 2nd Samuel begins with David receiving news of the death of Saul and his sons. They died fighting against the Philistines. Saul's death interestingly enough given the subject of this sermon series occurred on a mountain. Saul died on Mount Gilboa (1 Sam 31).

David is deeply troubled by the death of Saul and his sons. He proclaims a time of mourning and lament. Following this David who was 30 years of age at this time was anointed king of Judah. The astute among you may point out that this was David's second anointing. Let me take you back to 1st Samuel for the first.

Then Samuel took the horn of oil and anointed him in the midst of his brothers; and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David from that day forward. So Samuel arose and went to Ramah. (1st Sam 16:13)

This first anointing described above was a private (family) affair. This second occasion described here in 2nd Samuel was very different. This anointing marked the formal acknowledgement that the people of Judah now viewed David as the one chosen by the Lord to be their king.

It is important for us to note before moving on that the nation was divided at this time. There were two kings. David was king of Judah and Saul's son Ish-bosheth was king over Israel. Ish-bosheth set up his capital in Mahanaim (2 Sam 2:8). David picked Hebron to be his capital. It was not long before civil war broke out between the houses of Saul and David. The war effectively comes to an end with the brutal murder of Ish-bosheth. This brings us neatly to chapter 5. Let's pick up the story.

오늘의 이야기는 사무엘하에서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입니다.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그 책을 상하 두 권으로 나누었고, 오늘날 성경에서도 여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사무엘상과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왕정을 세우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약 100 년의 기간을 다룹니다. 사무엘의 탄생과 그가 하나님의 선자자로 세움을 받고 아스리엘을 다스리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아스리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흥망성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매우 나빴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무엘하는 약 40 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룹니다. 내용은 두 개의 주요 부분과 하나의 부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의 승리(1-10 장)를 다루고,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의 고난(11-20 장)을 다룹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21-24 장)은 연대기가 아닌 부록으로, 다윗의 통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사망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죽었습니다. 이 설교 사리즌의 주제와 관련하여 흥미롭게도 사울은 산에서 죽었는데, 길보아 산이었습니다(삼상 31 장).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는 애도의 기간을 선포합니다. 그 이후 30 세였던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 눈치 빠른 사람은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뿌렸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랴 사무엘이 떠나서 리모 가랴 (삼상 16:13)

다윗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은 개인적인(가족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의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매우 달랐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유다 백성이 다윗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당시 나라가 분단되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두 명 있었는데,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스리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을 수도로 삼았고(삼하 2:8), 다윗은 헤브론을 수도로 선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과 다윗 가문 사이에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보셋이 잔혹하게 살해되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5 장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 Then all the tribes of Israel came to David at Hebron and spoke, saying, "Indeed we are your bone and your flesh. 2 Also, in time past, when Saul was king over us, you were the one who led Israel out and brought them in; and the LORD said to you, 'You shall shepherd My people Israel, and be ruler over Israel.'"

No nation can really thrive and prosper when it is divided. Strength always comes from unity. God's

people recognised this fact.

They knew that their ongoing success depended upon uniting behind a strong and competent leader. With Ish-bosheth dead the other eleven tribes were now without a leader. It seems that they were all agreed that David was the ruler they needed. Why might they have all come to this conclusion? That's a good question. Allow me to explain. Moses had actually received from God a list of criteria to look for in a prospective king. The full passage can be found in Deuteronomy (17:14-20). Let's look at some of key things from that passage now.

15 you shall surely set a king over you whom the LORD your God chooses; *one* from among your brethren you shall set as king over you; you may not set a foreigner over you, who *is not* your brother.

Saul had been the people's choice. David, however was the Lord's choice. He was the man that God had chosen to be the shepherd over His people. It now seems to be common knowledge that the prophet Samuel had anointed David many years prior to him becoming the official king and ruling in Hebron. David had probably been in his mid to late teens at this time.

God had also stipulated that the king was to be an Israelite. Not a foreigner. The people affirm here that David is of the same **bone and flesh** as them. He can trace his ancestry back. David as we know was born in Bethlehem and was a member of the royal tribe of Judah. So clearly David fit the bill. He was an Israelite and more importantly he was God's choice.

17 Neither shall he multiply wives for himself, lest his heart turn away; nor shall he greatly multiply silver and gold for himself.

Okay, let's be honest David failed in this regard. He was obviously a man who had difficulty keeping his fleshly desires in check. He had multiple wives. Eight are mentioned by name (Michal, Ahinoam, Abigail, Maacah, Haggith, Abital, Eglah and Bathsheba). But there may have been others. However at this time many of these problems had not fully emerged.

19 And it (the law of God) shall be with him, and he shall read it all the days of his life, that he may learn to fear the LORD his God and be careful to observe all the words of this law and these statutes, 20 that his heart may not be lifted above his brethren, that he may not turn aside from the commandment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and that he may prolong *his* days in his kingdom, he and his children in the midst of Israel.

David as the bible tells us was a man after God's own heart. In Acts 13:22 we read,

22 And when He had removed him, He raised up for them David as king, to whom also He gave testimony and said, 'I have found David the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who will do all My will.'

So David sought to always do God's will. He tried (and failed as we all do) to live a life putting God first and aiming to please Him. Another reason David was a man after God's own heart is that he absolutely loved God's Law. Of the 150 psalms in the Bible, David is credited for writing over half of them. Writing at various and often troubling times in his life, David repeatedly mentioned how much he loved God's perfect Word.

Another important aspect of leadership comes in actually and effectively being able to lead people. Here in verse two of chapter 5 the people acknowledge that David has already demonstrated his leadership abilities. He had proven himself on numerous occasions to be a seasoned warrior. He had led the army out to battle and brought them back victorious many times.

So when it came to both military matters and politics in the broader sense he had proven to be a man that people would loyally follow.

So to sum things up. David met three vital criteria necessary to be king. He had been chosen by God, he had shown he had the ability to lead and he was an Israelite.

Therefore all the tribes (or representatives from each) came to meet with David in his capital of

따라서 다윗은 군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정치적 측면에서 사람들이 그를 충성스럽게 따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보였으며,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또는 각 지파의 대표자들)가 다윗의 수도 헤브론으로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새로운 왕에게 열렬히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3 Therefore all the elders of Israel came to the king at Hebron, and King David made a covenant with them at Hebron before the LORD. And they anointed David king over Israel.

4 David was thirty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forty years. 5 In Hebron he reigned over Judah seven years and six months, and in Jerusalem he reigned thirty-three years over all Israel and Judah.

So the tribal elders gather in Hebron and determine to follow David as their king. A covenant or an agreement is made between them. This agreement made before God probably included a fresh commitment to the Mosaic Law. Both parties no doubt agreed to remain fully committed to Yahweh. Their agreement also outlin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king to the people, and the people to their king. When this formal and binding contract had been made the elders anointed David with oil. Are you keeping track of David's anointings? This is the third! Can you imagine how sticky he must have been.

As I told you before David was 30 years old when this took place. This was considered the perfect age at which to take on the responsibility of leadership (see Num 4:3 and Luke 3:23). Let me give you some evidence for this. Three prominent descendants of Jacob began their ministries at or near the age of 30; Joseph, David and the Lord Jesus.

David was to enjoy a long reign. In total, he reigned for forty years. This period is divided into two parts. He reigned for over Judah alone for seven years and six months. He then reigned over a united Judah and Israel for a further thirty-three years.

Let us move on now and talk about how David made Jerusalem his capital.

3.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4. **다윗이 나이가 삼십 세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다스렸도다**
5. **헤브론에서 칠 년 육개월 동안 유대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스렸도다**

각 지파의 장로들은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이 언약에는 아마도 모세 율법에 대한 새로운 헌신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양측은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동의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에는 왕이 백성에게, 백성이 왕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언약이 체결되자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몇 번째 기름 부음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가 얼마나 끈적거렸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때 당시 다윗의 나이는 30 세였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책임을 맡기에 완벽한 나이로 여겨졌습니다(민수기 4:3 과 누가복음 3:23 참조). 이에 대한 몇 가지 증거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세 명의 저명한 후손 즉 요셉, 다윗, 그리고 주 예수님은 30 세 또는 그 무렵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총 40 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시기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7 년 6 개월 동안 유대를 단독으로 다스렸고, 그 후 33 년 동안 유대와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통치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 And the king and his men went to Jerusalem against the Jebusites, the inhabitants of the land, who spoke to David, saying, “You shall not come in here; but the blind and the lame will repel you,” thinking, “David cannot come in here.” 7 Nevertheless David took the stronghold of Zion (that is, the City of David).

David as we noted before had set up his capital in the city of Hebron. For a number of reasons this was not the most ideal place to have the capital of the now united nation. So David sought a new site for his headquarters. He decided upon the city of Jerusalem. This was a wise choice. Its elevated location, surrounded on three sides by valleys, made it fairly easy to defend. But also, perhaps more importantly at this time it made good political sense. Jerusalem had never belonged to any of the tribes, so nobody could accuse David of playing favourites in setting up his new capital here. However in saying all this we should not neglect the vital detail that Jerusalem was God's choice. Let me read to you from 1 Kings 11:22

(but he shall have one tribe for the sake of My servant David, and for the sake of Jerusalem, the city which I have chosen out of all the tribes of Israel)

There was just one slight problem. The problem was that the city was currently occupied. The Jebusites who were living there did not really want to give up their city.

Joshua had captured Jerusalem during his conquests of the land (Josh 10), but shortly after this the native inhabitants, the Jebusites, retook the city (Judg. 1:21). Historically speaking the Jebusites were descendants of Jebus, the third son of Canaan (Gen. 10:16; 1 Chron. 1:14).

The city then had been in their control, according to the historian Josephus for 515 years. This naturally gave them a great deal of confidence in their ability to hold on to what was theirs. They believed their city was impregnable. This is reflected in their boast,

“You shall not come in here; but the blind and the lame will repel you,”

They believed that even their weakest citizens, those who were physically handicapped would be able to repel the Israelite army. Such a boast made David angry. He knew that the Lord had promised Moses that Israel would conquer all the nations living in Canaan, including the Jebusites (Ex. 23:23–24). So David devised a cunning plan. Here in verse 7 we just read that he took the stronghold of Zion (Jerusalem) but allow me to give you the details.

David promised that the man who entered the city and subdued it would be made the chief and captain of his army (1 Chronicles 11:6). David's nephew Joab accepted the challenge. David then told him about a vertical water shaft connecting with a tunnel leading to an underground water supply outside the walls. It was a way to gain access unnoticed into the city. Climbing up the shaft would have been difficult but not impossible. This was what Joab did. There is some disagreement on exactly what he did to bring about the Jebusite collapse. Some claim he blocked the water source and forced their surrender. Others think he simply opened the gates or lowered ropes that allowed other soldiers to enter. However it happened David's forces took the city.

In 1867 the British archaeologist and engineer Charles Warren discovered the shaft Joab used. It had been filled with debris and “lost” for hundreds of years. The shaft connected the ancient spring of Gihon with the settlement or stronghold on the south-eastern hill. It runs for a length of about 230 feet (70 m). Imagine creeping along that!

Once the city was captured David occupied the mount and called the southern part “the City of David.” Interestingly the name "Zion" appears for the first time here. It would go on to have great national significance. In the years to come he and his successors strengthened the fortress and developed the city by expanding outwards and surrounding the city with walls.

And so we bring our brief study of Mount Zion to a close.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be

hopping across to the Mount of Olives.

6.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인 여부스 사람을 차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아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다윗이 아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힘이나

7.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앞서 언급했듯이 다윗은 헤브론에 수도를 정했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이곳은 통일된 국가의 수도로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로운 본거지를 모색했고,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삼면이 계곡으로 둘러싸인 높은 지대는 방어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타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았기에, 다윗이 그곳을 새 수도로 정한 것이 편애였다고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긴요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 장 13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13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성읍에 이미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했었지만(수 10 장), 그 직후 토착민인 여부스 사람들이 도시를 도켰습니다(창 1:21). 역사적으로 여부스 사람들은 가나안의 셋째 아들 여부스의 후손이었습니다(창 10:16; 대상 1:14).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들은 당시 515 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곳이 난공불락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자랑에서 잘 드러납니다.

"네가 결코 아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에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여부스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땅의 모든 부족들을 정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출 23:23-24). 그래서 다윗은 영리한 계책을 꾸미었습니다. 7 절에서는 그가 시온(예루살렘)의 요새를 점령했다고만 기록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 들어가 정복하는 자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역대상 11:6). 다윗의 조카 요압이 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예루살렘 성벽 바깥 쪽에 있는 지하수원까지 이어진 터널과 연결되어 있는 수직 수로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수로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어려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압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떻게 해서 여부스 족속을 몰락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수원을 막아 항복을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단순히 성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열었거나 병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빗줄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다윗의 군대가 그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1867 년, 영국의 고고학자이자 엔지니어인 찰스 워런은 요압이 사용했던 갱도를 발견했습니다. 그 갱도는 수백 년 동안 진해로 뒤덮여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 갱도는 고대 기혼 샘과 남동쪽 언덕에 있는 요새를 연결했습니다. 길이는 약 70 미터(230 피트)에 달합니다. 그 갱도를 따라 기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도시를 함락하고 산을 점령한 후 남쪽 지역을 "다윗 성 the City of David"이라고 불렀습니다. 흥미롭게도 "시온"이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이후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윗과 그의 후계자들은 요새를 강화하고, 도시를 성벽으로 둘러싸고 외부로 확장하여 도시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온산에 대한 간략한 연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람산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drawn two lessons from today's teaching.

저는 오늘이 가르침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Choosing good leaders

Choosing leaders is often a challenge.

At times good strong people rise to the top and make themselves known. But at other times we are left wondering who to pick from a mediocre bunch.

Whether it be leaders in church, in the local community or even national leaders we know the importance of choosing good, ideally the best people. The consequences for making bad choices can be disastrous. Churches have split or even closed their doors due to poor leadership choices. National governments have fallen and widespread economic catastrophe had ensued because poor leaders were selected.

The people of Israel in today's account found themselves in a leadership crisis. Their king, Ish-bosheth was dead. What were they to do?

They could either look among themselves for a new leader, or they could consider David. He was clearly a strong candidate. But some among them probably had reservations about David. Would he not favour his own tribe? Could he really unite the nation? Was he really the right man to lead them. It was an important decision. What criteria were they use to judge him?

They very wisely looked for three characteristics that should mark out anyone who leads, or desires to lead God's people. These three principles still apply when we are looking to appoint a person to leadership within the church. Let us consider them now.

1. A leader must belong to God's people.

Now in the case of God's chosen people this refers of course to David being a member of one of the 12 tribes. A foreigner could not assume the position of leadership.

Today when we look for a leader in the church we want to assess that person's walk with Christ. We want to gauge whether they truly have a heart for God and what He desires. Sadly at times in the modern church people are appointed for political reasons, or simply because they are a long serving member. They may or may not have the right heart to lead God's people. It's important for us to assess this before promoting people.

2. A leader must demonstrate the capability to lead.

This should be obvious, but its amazing how many times people are promoted who have no idea how to lead others. The people in David's day had plenty of evidence regarding his leadership credentials. He was nationally known as a brave and competent warrior. David was a bold and courageous leader of men.

Today we must equally seek out people who have the ability to lead. Sometimes we do not know until we give them a degree of responsibility. But in most cases people who have the ability to lead stand out. We see that they have confidence, wisdom, integrity, compassion and that they are disciplined and well organised. All of these attributes makes them stand out as potentially good leaders.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3. A leader must have an evident call from God.

We should observe two things in our Christian leaders. Firstly we should believe them to have all that is necessary to do the job, and more importantly that God has called them to it. Secondly the

person themselves must feel that God is calling them to this position. If either of these is missing then this person is not the right person for the job.

So in David's case he knew that it was God's will for him to be king over the nation. When the elders assessed him they also came to the conclusion that not only was he the right person, but also that God had called him. They were happy therefore to fall under his leadership.

So let us be wise when we seek new leaders. The criteria we have just discussed provides a good framework in choosing the right person.

1 좋은 리더를 선택하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쁨은 유능하고 강한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 지역 사회 지도자들, 심지어 국가 지도자들, 단순히 좋은 사람 이상인 최고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선택으로 교회가 분열되거나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선출되면 국가 정부가 무너지고 광범위한 경제적 재앙이 발생합니다.

오늘 구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를 잃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왕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그들 중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찾거나, 아니면 다윗을 지도자로 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다윗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지파를 편애하지 않을까? 그가 정말로 국가를 통합할 수 있을까? 그가 진정으로 그들을 이끌 적임자일까? 이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를 판단했습니까?

그들은 현명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특징짓는 세 가지 기준을 찾았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임명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인들의 경우, 다윗이 이스라엘의 12 지파 중 한 지파에 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인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도자를 찾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분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나 단순히 오랫동안 섬겨 온 교인이라는 이유로 지도자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임명하기 전에 이 점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도자는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도자로 임명되는지 놀랍습니다.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유능한 전사로서 온 백성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대담하고 용감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역량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맡기기 전까지는 그 능력을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도자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돋보입니다. 그들은 자신감, 자혜, 정직, 연민, 그리고 규율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질들이 잠재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라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3. 지도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질을 갖추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지도자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지위로 부르신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그 직분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 그는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평가했을 때, 다윗은 올바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리더십에 가까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지도자를 찾을 때 자혜로우야 합니다. 방금 논의한 기준들은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데 좋은 틀을 제공합니다.

2 With God the impossible becomes possible

In today's account we read about how God's people were faced with the daunting prospect of taking the Jebusite city of Jerusalem. The Jebusties were confident to the point of arrogance. No one would be able to take their well defended city. To them the task facing the Israelites seemed impossible. David, and more importantly God did not agree. With God the impossible becomes possible.

Now, we may not be leading an army attempting to take a well defended fortress. But we all have obstacles and problems in our lives that seem impossible. We may face serious health concerns, money troubles, employment worries and difficult people we have to deal with. It may be a call we have to do something that we feel inadequate or unqualified to do. A way through these things may strike us as impossible. We may think that God has forgotten us and that we are never going to overcome this issue. But that simply is not the case. God often puts these obstacles in our way to challenge, test and try us. We learn a valuable lesson through them. We learn not to try to do everything ourselves but instead trust in God. These impossible tasks are nothing to the all powerful sovereign God of the universe. He's our Father and He loves us. Why then do we spend so much time worrying and stressing. Form a human perspective the challenges we face may appear to be impossible, but to God they are nothing.

Let us turn to God and embrace the idea that with God the impossible becomes possible.

2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기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부스 족속의 도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힘든 도전에 직면했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오만할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견고한 요새를 함락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임무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도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는 견고한 요새를 점령하려는 군대를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과 문제들을 겪습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취업 걱정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혹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일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고 우리는 결코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 이러한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값진 교훈을 얻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우주의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은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되새깁시다.

